산업통상부

보도자료

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	2026. 11. 17.(화) 15:30 <11.18.(수) 조간>	배포	2026. 11. 17.(화)

산업부 장관, 수출 1조 달러 앞두고 수출 최전선인 인천신항 방문

- 수출·물류 현장 노동자 격려

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,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우리 수출의 최전선을 찾았다. 김 장관은 11월 17일(화) 인천신항(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)을 방문해 우리 수출품이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현장을 살펴보고,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뒷받침해 온 항만·물류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올해 우리 수출은 중동전쟁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과의 경쟁력과 소비재 등 유망 품목의 성장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. 특히 11.10일까지 누적 수출이 9,6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번주 중 사상 첫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예상되고 있다.

김 장관은 현장에서 “수출 1조 달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라, 세계 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인들과 생산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, 우리 제품이 세계 곳곳에 도달하도록 뒷받침해 온 물류 종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쌓인 결과이다”라고 강조했다.

이어서 “특히 인천신항은 중고차·화장품 등 우리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중요한 관문”이라며, “우리 수출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수 많은 분들 덕분”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, “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, 물류를 비롯하여 금융·통상 등 수출 관련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부 수출입과	책임자	과 장	민문기	(044-203-40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훈	(044-203-404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인천신항 현장방문 개요**

□ **(일시)** 11.17(화) 15:30 ~ 16:00

□ **(장소)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(SNCT)**

(주소 :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707)

□ **(참석자)** 장관, 대변인, 무역국장, 수출입과장 등
인천항만공사 사장,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 등

□ **(홍보 계획)** 보도자료 배포, 출입 매체 기자단 동행

시 간	내 용		
15:30~16:00 (30')	**현장 방문**		
~15:30	영접(산업통상부, IPA, SNCT)		운영동 입구
15:30~15:35 (5')	이동(운영동 → 하역현장)		내부 버스
15:35~15:45 (10')	**야적장**	선적 또는 하역작업 참관(5')	
		방한용품(넥 워머) 전달 및 기념사진 촬영(5')	
15:45~15:50 (5')	이동(하역현장 → 운영동)		
15:50~15:58 (8')	**운영동**	원격조작실 이동(2')	
		원격조작실 작업(크레인 조작 등) 참관(6')	
15:58~16:00 (2')	환송 및 현장 방문 종료		